

코호트별 사회이동 경향 분석*

여유진**

요약

본 연구는 출생 코호트별로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자녀의 교육 수준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아버지와 아들 직업의 이동을 교차분석표와 승산비 그리고 아들의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화 세대에서 민주화, 정보화 세대로 올수록 숙련기능직이 줄어들고 서비스, 판매직과 사무직이 증가하는 탈산업화 추세를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직업의 세습, 특히 관리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에서의 세대 간 직업 고착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지만 사회이동률표 분석 결과, 코호트별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비해,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호트별로 본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본인의 학력, 민주화 세대의 경우 본인의 학력과 함께 부모의 학력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화 세대의 경우 본인의 학력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대신 부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주요어: 사회이동, 코호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 직업, 근로소득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보고서 중 일부를 수정한 원고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eugene@kihasa.re.kr)

1. 들어가며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은 사회(정책)학의 본류를 형성하는 주요 연구 주제이며,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뒤르켐(D. E. Durkheim)을 필두로 하는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모든 개인이 인신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거래 행위를 통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적 계층과 지위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갈등론 또는 맑스주의적 관점에서는 생산관계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며, 계급 간 사회 이동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베버(M. Weber)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 즉, 사회적 계급에 따라 생활상의 다양한 기회가 상당 정도 차등화 된다는 데 일정 정도 인식을 공유했다.

불평등과 사회이동을 둘러싼 오랜 사회학적 논쟁은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재현된다. 그 핵심 질문은 가정 배경,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와, 이 과정에서 학교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이다. 블라우와 던컨(Blau & Duncan, 1967), 세웰과 하우스(Sewell & Hauser, 1975) 등에 의해 경험적으로 지지되는 기능주의적 낙관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교 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성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대척점을 이루는 갈등론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보울즈와 진티스(Bowels & Gintis, 2002)는 가정 배경이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에 주목한다. 나아가 학교교육 역시 사회이동의 매개체로서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존속시키는데 일조한다고 주장한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계층과 계급을 공고화하고, 이렇게 강화된 계층 또는 계급에 따라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Parkin, 1971; 김종엽, 2003)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어느 사회나 특권적 위치를 점한 계층은 자신의 자녀가 자신들과 비슷한 계층위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경제적 자원동원에서의 강한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계층의 강한 세습화를 낳는다.”(Parkin, 1971; 여유진 외, 2007:54 재인용)는 것이다. 교육열이 유독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제기된다(김기석, 2004). 또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이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도 제기되고 있다(김봉근·석재은·현은주, 2012). ‘출발선상의 기회의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대’가 아니라 ‘기본’ 요건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기회의 불균등한 배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규범적 측면에서나 사회 통합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이동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

의 학업 성취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업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출생 코호트별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리변수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수 중 하나인 직업의 세대 간 이전 혹은 고착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직업의 절대적·상대적 이동률표는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상태에서 세대 간 직업의 고착화 양상을 비교적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세대 간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과 교육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늠자이자 결과라 할 수 있는 근로소득을 활용하여 부모의 학력과 자산, 그리고 본인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의 코호트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이동의 경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과 사회이동

사회이동이란 “주어진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생애 과정 내(세대 내) 혹은 세대를 넘어(세대 간) 변화하는 정도”(d'Addio, 2007)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이동 연구의 초점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본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정도가 시기에 따라, 사회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와 왜 다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Goldthorpe, 1987; 장상수, 2001:106).

사회이동 경향과 관련하여, 소로킨은 “경제계층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하여간 감소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시험·선발·배치 기관으로서의 교육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는 무경향 파동이론(Trendless Fluctuation theorem)을 주창했다. 하지만 특정 도시(미네아폴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 산업화 사회는 과거보다 사회이동이 활발하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Edgell 1993 재인용). 립셋과 젯트버그(Lipset & Bendix, 1959:13)는 나아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산업화가 고도의 사회이동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이동의 전체적인 양상은 여러 서구 산업국가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상향이동은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로의 이동에 집중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상대이동 자료에 기초하여 전후 영국 사회를 분석한 골드소프는 사실상 계급 불평등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감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Edgell, 1993 재인용).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초기 산업화 시기, 서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산업화(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가 사회이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인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이동 연구에서는 공교육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해 왔다. 솔론(Solon 2004),

데이비드 등(Davies, et al. 2005)도 세대 간 소득 이동이 사교육 하에서보다 공교육 하에서 더 높고, 사교육 역할의 증가는 유의미하게 세대 간 소득 이동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하누스 등(Hanushek et al., 2004)은 공적으로 지원되는 대학교육은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더 많은 세대 간 이동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페카리넨과 동료들(Pekkarinen, et al., 2006)은 1972~1977년 핀란드에서 행해진 교육체계의 포괄적 개혁이 세대 간 소득 상관관계를 7%p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유사한 결과가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도 보고되었다(d'Addio, 2007:45-46 재인용). 교육이 사회이동에 미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디아디오(d'Addio, 2007)는 공교육 제공은 교육과정에서의 가족 투자에 대한 대체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이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최근 들어 불평등 상승이 세대 간 역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의 최상층과 최하층의 양극단에서 계급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194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단위 미국 센서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 간 소득탄력성(intergenerational elasticity, IGE)을 분석한 아론슨과 바쉬카르(Aaronson and Bhashkar, 2005)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탄력성은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약간 떨어졌지만 1980년대 동안 급격하게, 1990년대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수십 년 간 미국에서 사회이동성이 하락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최근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소득 분포의 양극단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Torch, 2009). 예컨대, 코코란과 아담스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소득욕구비의 상관 분석 결과를 통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방법으로 아버지의 소득이 아들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아이드와 쇼발터의 분석 결과에서도 하위 소득 분위에서 회귀계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사회이동 경향이 모든 계층이나 계급에서 일률적·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최상층과 빈곤계층에서 더 강한 대물림 매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Corcoran and Adams, 1997; Eide and Showalter 1999; 김위정, 김왕배, 2007:5 재인용).

교육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학력이 직업구조의 상층부를 점유하고 있는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층부를 배제하는 데 기여한다”(장상수 2011:32)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갈등론적 시각의 경제적 재생산론, 부르디외(P. Bourdieu)의 문화 재생산론, 루카스(Lucas, 2001)의 EMI(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가설에 기반한 연구들이 이러한 시각을 대변한다. 장상수(2011)는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공교육이 절대적으로 팽창하고 상급 학교로의 이행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르딕 복지국가와 같은 예외적인 사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시계열적으

로 안정된 경향을 보이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2) 사회이동 관련 국내 연구들

한국의 사회이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2000년 전후까지는 계급이동과 직업이동에서 코호트별, 시계열적 변화의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결과(차종천 1991; 신광영 1994; 장상수 2001 등)였다면, 2000년대 이후는 점차로 계급이나 계층이동의 경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김영화·김병관(1999)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과 사회적 성취에 관한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학교교육의 계층 이동 기능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학업 성적이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해 왔음을 밝혔다. 한국노동패널조사(1~17차)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간 소득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이경희(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소득 분위가 자녀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 사회이동 조사』를 사용하여 출생 코호트별 절대적·상대적 사회이동을 분석한 계봉오, 황선재(201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근 코호트의 절대적 이동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상대적 이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수저 계급론과 사회적 폐쇄의 강화론이라는 인식 변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문하고 있다.

김위정·김왕배(2007)는 특히 세대 간 빈곤이행의 경향성이 세대에 따라 달라졌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연구라 할 수 있다. 노동패널 1~8차 자료를 활용하여 코호트별 세대 간 빈곤이행의 경향을 대수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코호트별 세대 간 빈곤이행의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세대 간 빈곤의 세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빈곤 지위는 부분적으로, 본인의 학력과 노동시장 지위, 그리고 가구주의 성은 전체적으로 세대 간 빈곤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와 자녀의 소득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 이동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희삼 2009; 최지은, 홍기석 2011; 김봉근, 석재은, 현은주, 2012; 양정승 2012). 이들 연구들은 한국에서 가장 오랜 패널데이터가 축적되어 온 한국노동패널(KLIPS)을 사용하고 있으며, OLS 회귀분석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보정 방법을 통해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 자료의 차수, 분석 대상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추정 결과, 과소 추정의 위험이 있는 OLS 회귀분석 결과치는 대략 0.14~0.30, 반대로 과대 추정의 위험이 있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방법의 추정 결과치는 대략

0.3~0.57 내외였다. 김세움(2014:52)은 이들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대략 0.35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저자들은 패널 데이터의 연한이 외국에 비해 짧은 등의 이유로 선부른 결론이나 직접적인 국가 간 비교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연한이 짧기 때문에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종단적 경향성을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이 밖에도 최근 자산 불평등과 자산의 세대간 전승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마강래·권오규, 2013; 강은택·안아림·마강래, 2017), 이들 연구 결과 역시 자녀 세대의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이 부모 세대의 자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세대 간 사회이동을 연구한 국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분석 방법에서는 이동률표를 활용한 절대적·상대적 이동을 분석하는 방법, 대수선형모형을 활용한 방법,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동률표 분석 방법은 교육수준, 직업 등 서열변수를 활용하기에 용이하지만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대수선형모형은 직관적 해석에서 간명성이 다소 떨어진다.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은 무엇보다도 소득과 같은 비율 변수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패널 데이터가 오랜 기간 축적되지 않은 경우 코호트 간 비교 분석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간 비교의 목적을 위하여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되, 아버지와 아들의 직종 간 이동률표와 아들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산과 본인 학력의 효과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사회이동의 추이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코호트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개방사회(open society)에서 폐쇄사회(closed society)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코코란과 아담스(1997), 아이드와 쇼발터(1999), 김위정과 김왕배(2007)의 연구 결과에 주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의 양 끝에서 고착화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자산 불평등과 부의 세습 관련 논의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자산이 자식의 현재 경제적 지위와 유관한지를 상속의 현재가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원자료로 조사 완료된 사례수는 4,052명이다. 이 중 코호트별 계층과 계급 이동의 실태와 영향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5세 이상 직업이 있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일정 정도 학업을 완료한 사람만을 추출함으로써 대학 재학생(무직자나 아르바이트생)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남녀 간의 상이한 노동이력과 임금격차 등 성별 요인으로 인한 효과(noise)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세대 간 사회이동의 역동성이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다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세 개의 코호트(cohort)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코호트는 1940년생~59년생까지, 두 번째 코호트는 60년생~74년생, 그리고 세 번째 코호트는 75년생~95년생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함인희(2007) 등에 의한 세대 구분방식이며, 그녀에 의하면 “최근 한국사회의 세대 구분과 관련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소간 의견을 달리하기는 하나 대체로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로 삼분하는 논의가 일반화”(함인희 2007:250)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이러한 세 세대 간에 역사적 경험의 차이로 인해 사회·문화·가족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대체로 산업화 세대는 고교서열화, 사교육 시기와 일치하며, 민주화 세대는 사교육 금지시기, 그리고 정보화 세대는 다시 사교육 허용, 특목고 확대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¹⁾.

세대 간 사회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코호트별 세대 간 절대적·상대적 사회이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상대적 사회이동률표를 활용하였다²⁾. 이 표는 응답자가 청소년일 때 아버지의 계급 지위와 응답자의 현재 계급 지위 간의 교차분류표이다. 즉, 부모와 동일 계급에 남아 있는 사람(‘immobility’ 즉, 표의 주 대각선), 상향 혹은 하향 이동한 비율, 본인(destination) 계급의 구성(행 혹은 유입 비율), 부모(origins) 계급의 분포(열 혹은 유출 비율) 등을 보여준다. 유입과 유출 분포는 계급 구성과 그들의 세대 간 안정성 수준을 보여주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절대적 이동성 흐름은 다시 구조적 이동과 상대적 이동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구조적 이동은 시간에 따른 계급구조의 변형을 일컬으며, 특정 계급 규모의 축소와 다른 계급의 확대를 보여준다. 구조적 이동은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그리고 다시 탈산업경제(서비스경제)로의 변형에 의해 추동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1) 중학교 평준화는 1968년, 고교 평준화는 1973년에 각각 시행되었다.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의 해소방안’에 의해 대입 본고사가 폐지되고 과외가 금지되었다. 과외금지조치는 2000년 4월 27일 위헌판결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사실상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해도 무방하다.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과학고는 1987년부터, 외국어고등학교는 1992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가되었다(여유진 외, 2007 참조).

2) 이하 사회이동률표 분석 방법은 토치(Torche, 2009)를 참조하였다.

육체노동자가 감소하고 사무직과 전문직이 증가하는 대규모 상향 이동이 일어났다. 이에 비해, 상대적 이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련성, 즉 순 구조적 변화(순이동률)를 일컬으며, 승산비(odds-ratios)로 측정된다. 승산비는 계급구조의 세대간 변화에서 부모세대의 계급에 따라 자식이 특정 계급으로 귀착될 상대적 기회를 나타낸다(Torche, 2009). 본 연구의 사회이동률표와 승산비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본인과 아버지의 직종이다. 직종은 세분류로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비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골드소프-에릭슨 분류(GEP) 등을 적용하는 대신,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기능직, 단순노무직의 5개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³⁾.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학력이 본인의 임금에 미친 영향을 세대별로 파악하기 위해 코호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을 활용할 경우 회귀분석을 통해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도출해 낼 수 있지만, 본 분석은 1회성 조사의 회상자료를 활용하므로 부모세대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 값을 계측할 수 없지만, 부모세대의 주관적인 계층과 학력,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증여 혹은 유산의 현재가치 변수를 활용하여 세대별로 부모세대의 요인들과 본인의 요인들이 현재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로 본인 근로소득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교육수준, 15세 무렵의 주관적 계층(10개 범주), 그리고 유산의 현재가치(로그값)를 사용하였다. 본인의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본인의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연령과 15세 무렵 성장 지역(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주요 변수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회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대리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본인의 경제적 수준	본인의 근로소득	ln(지난 3개월 동안 본인의 월평균소득)
독립변수	부모의 경제적 수준	주관적 계층(10개 범주)	1-10
	아버지의 계급지위	직종(직업)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기능직, 단순노무직
	부모의 유산	증여 혹은 유산의 현재가치	ln(유산의 현재가치)
	본인의 교육수준	최종학력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학이상
통제변수	연령	코호트	산업화 세대(1940~59년생), 민주화 세대(60년생~74년생), 정보화 세대(75년생~95년생)
		연령	만 나이
	성장 지역	15세 무렵 성장 지역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3) 이 때,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을 구분한 것은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최근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고,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간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5~64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직장이 있는 남자의 코호트별 사례 수와 평균 연령의 아래 [표 2]와 같다. 총 분석대상자 수는 1,342명이다. 코호트별 평균 연령은 산업화 세대 59.5세, 민주화 세대 48.1세, 정보화 세대 33.5세이며, 평균 연령은 43.6세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민주화 세대가 33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화 세대가 290만원, 산업화 세대가 252만원이었다. 유산의 현재 가치는 산업화 세대가 평균 3,495만원, 정보화 세대가 1,530만원, 민주화 세대가 1,44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소득과 상속의 현재가치를 해석함에 있어 연령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4세 무렵의 주관적 계층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화 세대에서 하위계층(38.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화 세대에서 중간계층(74.5%), 민주화 세대에서 상위계층(7.0%)의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산업화 세대의 부모는 90% 이상이 중졸 이하 저학력자였다. 민주화 세대 어머니의 경우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대다수(93.1%)를 차지하였으나, 아버지의 경우 31.9%가 고졸 혹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특징적이다. 이 시기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격차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보화 세대의 경우 고졸자 어머니의 비율은 49.5%로 고졸자 아버지의 비율 50.8%를 거의 따라잡았으나, 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여전히 10%p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화 세대의 38.5%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비율은 산업화 세대에서 10.1%로, 정보화 세대에서 1.1%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비례하여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는 산업화 세대 22.0%에서 민주화 세대 50.9%, 정보화 세대 72.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농어촌 출신이 거의 과반수(49.1%)를 차지하였으며,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로 올수록 농어촌 출신은 줄어드는 대신 중소도시, 광역시, 서울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

구분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전체
사례수(명)		181	593	568	1,342
근로소득(만원)		252.5	336.9	290.2	305.8
유산(증여)의 현재가치(만원)		3,495	1,449	1,530	1,767
14세 무렵의 주관적 계층 (%)	하위계층(1~3)	38.0	28.1	20.8	26.4
	중간계층(4~7)	56.5	65.0	74.5	67.8
	상위계층(8~10)	5.4	7.0	4.7	5.8
	계	100.0	100.0	100.0	100.0
아버지 학력 (%)	중졸이하	90.3	68.1	32.0	55.9
	고졸	7.2	22.3	50.8	32.2
	대학이상	2.5	9.7	17.3	11.9
	계	100.0	100.0	100.0	100.0
어머니 학력 (%)	중졸이하	97.0	83.1	43.5	68.4
	고졸	3.0	14.1	49.5	27.4
	대학이상	0.0	2.9	7.0	4.2
	계	100.0	100.0	100.0	100.0
본인 학력 (%)	중졸이하	38.5	10.1	1.1	10.3
	고졸	39.6	39.0	26.4	33.9
	대학이상	22.0	50.9	72.5	55.8
	계	100.0	100.0	100.0	100.0
만 나이(세)		59.5	48.1	33.5	43.6
성장 지역 (%)	서울	11.0	19.1	22.2	19.2
	광역시	10.6	19.9	22.1	19.5
	중소도시	29.3	29.6	45.3	36.0
	농어촌	49.1	31.5	10.5	25.3
	계	100.0	100.0	100.0	100.0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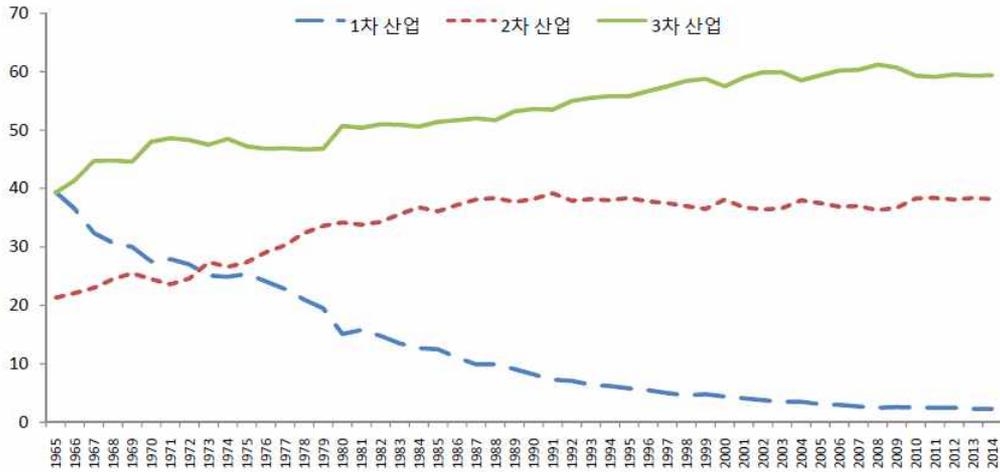
4. 분석 결과

1) 절대적·상대적 이동을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탈산업화로 인한 일자리 구성과 구조 변화 그 자체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직업 변화를 추동해 왔다. 실제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구성에 있어 1965년에는 1차 산업이 39.4%, 2차 산업이 21.3%, 3차 산업이 39.3%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그 비율은 각각 2.3%, 38.2%, 59.8%로 급변했다.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직업·계층·계층 이동을 구조적 사회이동이라 하며, 상대적 사회이동으로부터 이러한 구조적 사회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경제활동인구 중 사무직,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계층에서 비비례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이 증가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1] 산업구성 변화 추이

(단위: %)



원자료: e-나라지표(www.index.go.kr, 2015.12.7. 다운로드)

[표 3] 아버지 직업과 본인 직업 교차분석 결과

(단위: %)

	구분		아버지 직업					평균	Pearson's chi2 test
	세대	직업	단순 노무직	숙련 기능직	서비스 판매직	사무직	관리 전문직		
본인 직업	전체	단순노무직	11.7	7.1	3.1	4.1	4.9	6.0	Pr=0.000
		숙련기능직	26.9	39.2*	22.7	11.5	14.2	28.6	
		서비스판매직	37.3	23.9	32.8	22.7	19.6	26.0	
		사무직	10.2	15.4	23.9	40.5	18.3	19.6	
		관리전문직	14.0	14.5	17.6	21.2	42.9**	19.8	
	산업화	단순노무직	0.0	12.8	7.3	0.0	40.2*	13.4	Pr=0.000
		숙련기능직	21.3	54.7	44.3	0.0	14.5	46.7	
		서비스판매직	64.0	18.5	28.4	20.8	15.3	21.9	
		사무직	0.0	4.0	0.0	37.9**	12.6	5.3	
		관리전문직	14.7	10.0	20.0	41.3	17.4	12.7	
	민주화	단순노무직	16.3	8.5	5.7	8.9	1.9	7.8	Pr=0.000
		숙련기능직	39.3	36.4	25.8	17.6	10.8*	30.0	
		서비스판매직	23.8	23.8	34.0	24.9	21.2	25.5	
		사무직	5.9	13.8	12.3	25.6	9.7	13.3	
		관리전문직	14.7	17.5	22.2	22.9	56.4**	23.3	
	정보화	단순노무직	9.4*	1.3	0.8	1.4	2.0	1.9	Pr=0.000
		숙련기능직	13.7	33.1	18.3	8.5	16.6	21.5	
		서비스판매직	46.0	27.5	32.2	21.5	19.1	27.8	
		사무직	17.8	25.4	34.9	50.1	25.2	30.7	
		관리전문직	13.0	12.8	13.9	18.5	37.1**	1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는 기대도수와 실제도수 간 차이가 가장 큰 칼럼, 즉, chi2 기여도가 가장 큰 칼럼이며, *는 그 다음 순위임.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이를 위해 코호트별로 상대적 사회이동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에 대해 교차분석과 다중명목로짓(multi-nominal 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버지 직업과 본인 직업의 교차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숙련기능직의 비중이 가장 높아 46.7%를 차지하였으나, 민주화, 정보화 세대로 올수로 숙련기능직의 비중은 차츰 줄어들고 대신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구성의 변화, 즉 탈산업화(서비스산업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세대 간 사회이동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은 ‘무이동’ 즉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직업 고착화를 의미하는 주 대각선의 비율이 해당 직업의 평균 비율에 비해 높은 가운데서도 직업의 양쪽 꼬리 부분에서 이러한 고착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아버지가 사무직일 경우 자식이 사무직인 비율이,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의 경우 아버지가 관리 전문직일 경우 자식이 관리 전문직인 비율이 기대 도수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에서 아버지가 관리전문직이면서 본인도 관리전문직인 비율이 각각 56.4%와 37.1%로 해당 직업의 평균 비중 각각 23.3%와 18.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보화 세대의 경우 다른 한 쪽 끝에 위치한 직업, 즉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이면서 본인 직업도 단순노무직인 비율이 9.4%로 해당 직업의 평균치 1.9%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절대적 이동률, 즉 구조적 변화와 상대적 변화를 합한 총 이동률에서 상대적 변화만을 살펴보기 위해 코호트별 승산비를 계산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보화 세대는 민주화 세대에 비해 승산비가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단순노무직 대신 사무직에 종사할 승산과 사무직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단순노무직 대신 사무직에 종사할 승산의 비는 민주화 세대의 경우 7.888인데 비해 정보화 세대는 18.965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단순노무직 대신 관리전문직이 될 승산과 사무직 혹은 관리전문직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단순노무직 대신 관리전문직이 될 승산의 비는 민주화 세대가 각각 14.340과 33.772로 정보화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방식으로 승산비 로그값의 출생 코호트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특정한 방향의 추이 변화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소로킨(Sorokin, 1959)의 ‘무경향 파동’ 가설을 지지한 계봉오, 황선재(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의 직업 세습 경향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표 4] 아버지 직업에 따른 아들 직업의 승산비

본인직업 (base= 단순노무직)	아버지직업 (base= 단순노무직)	전체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숙련 기능직	숙련기능직	2.387	1.777	18.180**
	서비스판매직	3.181	1.872	16.652**
	사무직	1.214	0.818	4.157
	관리전문직	1.254	2.416	5.597
서비스 판매직	숙련기능직	1.046	1.928	4.497
	서비스판매직	3.311	4.081	8.766*
	사무직	1.733	1.918	3.137
사무직	관리전문직	1.245	7.841	1.930
	숙련기능직	2.475	4.475	10.755*
	서비스판매직	8.887**	5.909	24.515**
	사무직	11.370***	7.888*	18.965*
관리 전문직	관리전문직	4.276*	14.340*	6.580
	숙련기능직	1.697	2.300	7.412
	서비스판매직	4.731*	4.314	13.321*
	사무직	4.314	2.860	9.567
	관리전문직	7.257**	33.772**	13.209*
N		1,224	532	533
chi2		101.1	42.6	48.9

주: * p<0.05, ** p<0.01, *** p<0.001

산업화 세대는 사례수가 적어 모형적합도가 떨어져서 연구결과에 제시하지 않았음.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 근로소득 결정 모형

다음으로 코호트별 부모의 학력과 계층, 그리고 본인의 학력이 본인의 현재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본인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만 본인의 학력만이 현재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세대로 오면 상황은 변화한다. 즉, 부모의 학력, 특히 어머니의 학력은 본인의 현재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 세대에 이르면 부모의 학력 분화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의 학력 또한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학력 대신 15세 무렵 주관적 소득계층

과 상속의 현재가치를 투입한 부모계층효과 모형에서는, 두 변수 모두 본인의 현재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본인의 현재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부모학력 효과	부모계층 효과	부모학력 효과	부모계층 효과	부모학력 효과	부모계층 효과
부의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025 (0.185)		0.122* (0.059)		0.125* (0.052)	
	대학 이상	0.23 (0.293)		0.011 (0.092)		0.170* (0.068)	
모의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337 (0.286)		0.165* (0.072)		-0.02 (0.050)	
	대학 이상	- -		0.397** (0.149)		0.017 (0.083)	
15세무렵 계층(10범주)			0.012 (0.025)		0.016 (0.011)		0.021* (0.011)
상속의 현재가치			0.005 (0.011)		0.005 (0.006)		0.028*** (0.005)
본인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387*** (0.096)	0.309** (0.097)	0.314*** (0.074)	0.348*** (0.070)	-0.013 (0.165)	0.172 (0.159)
	대학 이상	0.780*** (0.124)	0.623*** (0.118)	0.610*** (0.075)	0.713*** (0.071)	0.046 (0.164)	0.243 (0.157)
연령		-0.033 (0.018)	-0.034* (0.017)	-0.001 (0.005)	-0.001 (0.005)	0.039*** (0.004)	0.036*** (0.004)
15세 무렵 성장지역(서울=0)	광역시	-0.008 (0.177)	-0.076 (0.176)	0.003 (0.063)	0.014 (0.063)	0.003 (0.049)	-0.016 (0.048)
	중소도시	-0.065 (0.147)	-0.075 (0.145)	0.217*** (0.060)	0.189** (0.058)	0.03 (0.043)	0.022 (0.042)
	농어촌	0.012 (0.138)	-0.013 (0.139)	0.270*** (0.061)	0.253*** (0.059)	-0.009 (0.064)	-0.064 (0.060)
상수		7.012*** (1.068)	7.127*** (1.009)	5.087*** (0.254)	5.034*** (0.250)	4.146*** (0.206)	4.012*** (0.198)
N		159	176	531	590	529	561
r2		0.290	0.222	0.229	0.223	0.186	0.219

주: * p<0.05, ** p<0.01, *** p<0.001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학력을 통제할 경우,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자란 남성이 서울에서 자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 시기 1968년에 중학교 평준화, 1973년에 고교 평준화, 1980년 사교육 금지 등과 같은 교육 평준화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화 세대의 경우, 앞선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와는 현격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세대에서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버지의 학력, 어린 시절의 경제적 계층과 상속의 현재가치로 나타났다. 민주화 세대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본인 근로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보화 세대에서는 아버지 학력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이는 계층효과 모형에서 기존 세대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15세 무렵의 계층과 상속액이 정보화 세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정보화 세대로 오면 아버지의 학력과 소득계층으로 대변되는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좀 더 직접적으로 본인의 현재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⁴⁾ 반면, 본인의 학력은 현재 근로소득에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보화 세대를 1975년생부터 1995년생까지로 설정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 사교육이 허용되었고, 2000년 4월 27일 과외 금지조치가 공식적으로 위헌판결로 폐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세대는 교육 측면에서 사교육과 특목고로 대변될 수 있는 세대이다. 다른 한편, 19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 불리는 교육개혁으로 대학설립자율화와 정원자율화가 추진됨으로써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진 세대이기도 하다. 1990년 33.2%이던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1995년 51.4%로 급등했고, 2006년에는 82.1%로 높아졌다(여유진 외, 2007:63-64). 대부분의 고졸자들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대졸자'의 변별력이 떨어짐으로써,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나', 즉 대학과 계열의 중요성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특목고로 인한 고교서열화와 대학 서열화는 과외 열풍을 더욱 부추김으로써 부모의 '인적 투자의 능력'과 '스펙 쌓기' 경쟁이 가열되었다. 정보화 세대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대신, 본인의 학력은 더 이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4) 연령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비록 직업이 있는 남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조사 시점에서 이 세대가 청년기부터 장년 초반기까지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직업 안정성,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의 변화가 상당히 많은 시기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5. 논의와 결론

지금까지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경향과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조적·상대적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이동률표를,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의 근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산업화와 탈산업화의 진행으로 단순노무직과 숙련기능직의 비중이 크게 줄었고, 대신 서비스판매직과 사무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직업위세도로 볼 때 대체로 그 동안 절대적 측면에서의 상향 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일자리가 반드시 숙련기능직에 비해 우세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상향 이동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 이론(異論)의 여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상대적 이동률 분석 결과, 직업지위에서 양쪽 꼬리(하층과 상층)에서의 고착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동률표에서 기대도수와 실제도수 간 차이, 로짓분석에서의 승산비에서 공히 확인되는 결과이다. 특히,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에서 관리전문직의 직업 세습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났고, 정보화 세대의 경우 단순노무직의 직업 고착화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상층과 빈곤계층에서 더 강한 대물림 기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아이드와 쇼발터(Eide & Showalter 1999)의 주장과, 한국에서 세대 간 빈곤 대물림 현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김위정과 김왕배(2007) 연구 결과를 일정 정도 뒷받침한다.

하지만 계봉오, 황선재(2016)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승산비 산정 결과 직업 세습에 있어 코호트별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단순노무직과 관리전문직 간의 승산비는 오히려 민주화 세대에서 더 높게 나타나, 오늘날 소위 빈익빈 부익부와 계급 세습을 비판하는 ·흙수저론의 인식론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계봉오, 황선재, 2016).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토치(Torch, 2009)가 주장하는 것처럼 “높은 불평등과 낮은 세대 간 이동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민주화 세대는 고학력화,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실업률, 소비사회의 도래, 급격히 낮아진 절대빈곤율과 전반적으로 낮아진 사회격차를 목도하며 자라난 세대인 반면, 정보화 세대는 이미 포화된 대학 정원 속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서열화가 심화되고 사교육 시장이 팽창됨에 따라 치열한 입시경쟁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빈곤과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자란 세대이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에는 구조적·절대적 상향 이동의 입직구가 넓었기 때문에 직업의 상대적 세습이 정보화 시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의 용인도가 높았다면,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고학력자의 비율은 크게 높아짐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제공의 고착화가 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산업화 세대의 경우 본인의 학력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변수였다. 부모의 학력과 계층은 근로소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화 세대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본인 학력과 더불어 근로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세대의 경우 지방 출신(중소도시와 농어촌)이 서울 출신에 비해 유의하게 소득이 더 높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세대는 교육평준화의 정점-중고교 평준화와 사교육 금지 시기-에서 성장한 세대이다. 또한 민주화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80년 전후에서 90년 초반까지)를 전후로 대학 졸업정원제(1981년) 실시 등 고등교육확대 정책이 실시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1980년 27.2%에서 1995년 51.4%까지 늘어났다(여유진 외, 2007:64).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 세대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평등 교육’의 혜택을 받은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방 출신의 기회 평등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화 세대로 오면, 아버지의 학력과 더불어 성장기의 소득계층과 특히 상속, 증여를 통한 자산이 본인의 근로소득 수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직접적 경제적 원조의 영향이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최근 김낙년(2015:2)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상속액 규모는 1970년대 국민소득의 5.7%에서 2010년 이후 8%로 높아졌고,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한 비중 역시 1970년대 37%에서 1980~90년대 27~29%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 42%로 상승하였다. 비록 부의 축적에 대한 연구 결과이지만,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화 세대로 올수록 부모와 나아가 조부모의 경제적 지위가—재산 축적뿐만 아니라—간접적으로는 인적 자본축적(학업성취),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 성취(근로소득과 직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화 세대에서는 임금에 미치는 본인 학력의 영향력이 사라지는데, 이는 경력효과(대졸 후 짧은 경력과 중고졸 후 상대적으로 긴 경력)와 더불어, 고학력화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대학입학률이 거의 80%를 육박하면서 대학졸업장이 더 이상 임금프리미엄의 표식으로 작용하지 않을뿐더러, 대졸자 내부의 임금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이주호·정혁·홍성창(2014:5)은 심각한 ‘교육거품’의 결과로 4년제 대학 졸업자 하위 20%와 2년제 대학 졸업자 하위 50%의 임금은 고졸자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김두환(2017)은 교육 사다리 역할론을 비판하면서 이는 기능주의적 능력주의에 다름 아니며, 특히 계층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교육과 직업지위 사이의 연관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 유효하지 않은 담론이라고 주장한다. 연령효과로 인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본인의 교육수

준이 근로소득 수준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의 계층과 물려받은 자산 수준이 본인의 현 직업위세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상당한 시사점을 던진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회상에 의한 부모 세대의 정보와 본인 세대의 현재 정보를 조사한 1회성 서베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하지만 패널데이터의 조사 연한이 짧아 본격적인 사회이동에 관한 코호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상에 의존하는 횡단자료 분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연령 효과를 통제하지 못한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정보화세대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안착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기이며, 반대로 산업화세대는 노동시장으로부터 퇴거하는 시기로서 이들의 직업과 소득은 최전성기의 직업, 소득 위세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민주화 세대만이 직업과 소득 위세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라는 점에서 본 코호트 비교 연구의 한계는 적지 않다. 향후 좀 더 정교한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들은 재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기석(2004). 공교육과 불평등의 대물림: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연구의 검토. *교육비평*. 17. 57-71.
- 강은택, 안아림, 마강래(2017). 부동산 자산과 소득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5(1). 5-19.
- 계봉오, 황선재(2016).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 출생 코호트 및 성별 비교. *한국인구학*. 39(3). 1-28.
- 김낙년(2015).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낙성대경제연구소*(2015.11.16.).
- 양정승(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추정. *노동경제논집*. 35(2). 79-115.
- 김두환(2017).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론 비판. *사회사상과 문화*. 20(4). 197-236.
- 김봉근, 석재은, 현은주(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추세. *노동경제논총*. 35(2). 25-41.
- 김세움(2014). 소득이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화, 김병관(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1). 155-172.
- 김위정, 김왕배(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1-36.
- 김종업(2003).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59. 3-77.
- 김희삼(2009).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마강래, 권오규(2013).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1(2). 169-188.
- 신광영(1994). 세대간 계급이동. *경제와 사회*. 23. 82-116.
- 여유진, 김수정, 구인희, 김계연(2007).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경희(2017). 소득계층 이동성 실태와 동적 변화. *노동리뷰* 2017(6). 77-19.
- 이주호, 정형, 홍성창(2014).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KDI FOCUS*. 46.
- 장상수(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대출판부.
- 차종천(1991). 남성 세대간 사회이동에 대한 상호연관모형 분석. *한국사회학*. 25. 155-175.
- 최지은, 홍기석(2011).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분석: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3). 143-163.
- Aaronson, D. & Bhashkar M. (2005). Intergenerational economic mobility in the U.S., 1940 to 2000. *Journal of Human Resources*. 43(1). 139-172.
- Blau, P. & Duncan, D. C. (1967).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ley.
- Bowles, S. and Gintis, H. (2002). The inheritance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6(3). 3-30.
- Corcoran, M., & Adams, T. (1997). Race, sex,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In Duncan G. & Brooks-Gunn J.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461-517). Russell

Sage Foundation.

- d'Addio, A. C. (200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sadvantage: mobility or immobility across generation? A Review of the evidence for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 Davies, J.B., Zhang, J. & Zeng, J. (2005). Intergenerational Mobility under Private vs. Public Educ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7(3). 399-417.
- Edgell, S. (1993). *Class*. (신형철. (역)(2001). 계급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Eide, E. R. & Showalter, M. H. (1999). Factors affecting the transmission of earnings across generations: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2). 253-267.
- Goldthorpe, J. H. (1997).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 Hanushek, E. A. & Woessmann, L. (2005). Does Educational Tracking Affect Performance and Inequality?: Differences-in-Differences Evidence across Countries. *NBER Working Paper* No.11124.
- Lipset, S.M. & Bendix, R.(1959).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olog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ucas, S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642-1690.
-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
-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New York: Praeger.
- Pekkarinen, T., Uusitalo, R & Pekkala, S. (2006). Education Policy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Evidence from the Finnish Comprehensive School Reform. *IZA DP* No. 2204.
- Solon, G. (2004). A Model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Variation over Time and Place(Chapter 2) in Corak, M. (ed). *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North America and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47.
- Swell, W. H. & Hauser, R. M.(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 New York: Academic Press.
- Torch, F. (2009).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in Latin America. *Research for Public Policy*. HD-09-2009. UNDP.

◀ Abstract ▶

Analysis of Social Mobility Trends by Cohort in Korea

Eugene Yeo*

This study focused on empirical analysis of how the socioeconomic status of origin correlates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destination, and how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child has the effect across birth cohort. To this purpose, mobility table, odds ratio,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number of skilled workers ha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service, sales and clerical jobs has increased from industrialized generation to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on generation. In the process, the intergenerational hereditary succession of occupations has occurred especially in management profession and simple labor. However, it was difficult to find a distinct trend by cohort. In contrast,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each cohort has different variables that affect his earned income. In the case of the industrialization generati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parents, along with their sons in the case of the democratization generation,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ons earned income, but the effect of their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for the information generation, the effect of their academic background was not significant, but it showed a marked effect of their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and socioeconomic status.

Keywords: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cohort,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 occupation, earned income

◆ 2019. 10. 20. 접수 / 2019. 11. 30. 1차수정 / 2019. 12. 02. 게재확정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